

사진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과 프로파간다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Propaganda in the Picture Postcard

저자 (Authors)	황익구 HWANG IKKOO
출처 (Source)	일본문화연구 63 , 2017.7, 49-75(27 pages) Japanese Cultural Studies 63 , 2017.7, 49-75(27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아시아일본학회 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 Asi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06456
APA Style	황익구 (2017). 사진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과 프로파간다. 일본문화연구, 63, 49-75
이용정보 (Accessed)	동아대학교 39.113.137.*** 2020/04/25 16: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사진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과 프로파간다*

황 익구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일본이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수행한 러일전쟁을 국민적 기억으로서 이미 지화(통합)하고 나아가 그 기억을 전승하고 변용해 가는 과정을 사진그림엽서라는 시각매체를 통해서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일본의 전쟁프로파간다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전개양상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러일전쟁을 제재로 제작된 사진그림엽서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프로파간다가 내재되어 있다. 먼저, 전황을 전달하는 미디어의 기능과 함께 전쟁이미지를 취사선택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작위적인 전쟁프로파간다이다. 다음으로는 ‘총후’의 여성상을 통해 여성의 국민화를 모색하려는 프로파간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동시에 전파하는 프로파간다이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발행된 사진그림엽서는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재현됨으로써 공적 기억을 형성하는 장치로서도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러일전쟁이 ‘자랑스럽고 위대한’ 전쟁으로 각인되고 기억되는데 일조를 하였다. 즉 러일전쟁을 계기로 발행된 사진그림엽서는 러일전쟁이라는 동시대적 기억을 집합적 기억으로 통합시키는 한편 후대의 전쟁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서도 재활용되었다.

키워드 : 러일전쟁, 사진그림엽서, 프로파간다, 여성의 국민화, 천황제 이데올로기

목 차

서 론

제1장 러일전쟁기의 사진그림엽서의 제작과 발매

제2장 사진그림엽서 속에 투영된 제국의 프로파간다

결 론 - 전쟁의 기억과 전승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5848)

서론

이 논문은 일본이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수행한 러일전쟁을 국민적 기억으로서 이미지화(통합)하고 나아가 그 기억을 전승하고 변용해 가는 과정을 사진그림엽서라는 시각매체를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전쟁프로파간다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전개양상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사진그림엽서는 1900(明治 33)년 사제엽서의 인쇄와 국내사용을 허가하는 우편법이 제정되면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사진그림엽서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그 사용이 급증하면서 공전의 붐을 일으켰다. 러일전쟁 중에 일본에서 전장으로 보내진 우편물의 대부분은 사진그림엽서였으며¹⁾, 사진그림엽서는 전장에 있는 병사들과 일본국내에 있는 국민들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 기능하였다. 전장에 있는 병사들에게는 가족과 지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일본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일본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전쟁 뉴스나 전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당시의 사진그림엽서는 전장의 군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위문품과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군인들의 사기고양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도 단순한 통신수단 이상의 가치와 역할이 부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시의 사진그림엽서는 전장과 일본국내를 잇는 커뮤니케이션 장치, 전쟁이라는 국민적 관심사를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미디어로서의 기능, 전쟁 수행을 위한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쟁프로파간다는 전시중에 대내적으로 자국군대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자국민에게는 전쟁을 위한 여론을 조장하는 고도의 전술이며 대중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외(국제)적으로는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전쟁의 우위를 선전함으로써 전황을 유리하게 전개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러일전쟁을 제재로 제작되고 유통된 사진그림엽서는 엽서의 제작자나 판매자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또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전쟁이라는 국가적 사

1) 히라마 요이치(平間洋一)에 의하면 러일전쟁 때의 군사우편은 청일전쟁(1894~1895) 때에 약 1,240만 통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약 4억 5,800만 통에 이른다고 한다.(平間洋一「絵葉書が語る日露戦争」『歴史街道』2012年2月、p.3)

건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작과정에 작위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적지 않으며, 다분히 전쟁프로파간다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종래의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진그림엽서가 수행한 보도 및 정보 전달 미디어로서의 기능과 역할, 자료의 시각성과 미술적 가치, 이문화의 표상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논의되었다.²⁾ 그러나 사진그림엽서에 반영된 전쟁프로파간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상에 대한 연구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분적이며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이 논문에서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제작되고 유포 판매된 사진그림엽서 중에서 특히 체신성이 발행한 관제기념엽서(‘戰役紀念絵葉書(총 5회 발행)’, ‘觀艦式紀念’, ‘滿洲軍總司令部凱旋紀念’, ‘陸軍凱旋觀兵式紀念’)와 사제기념엽서이지만 준관제기념엽서에 해당하는 육군훈병부엽서(‘陸軍恤兵部’), 일본적십자사업서(‘日露戰役救護紀念’)를 분석함으로써 사진그림엽서에 내재된 전쟁프로파간다의 다면적 선전내용과 일본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장 러일전쟁기의 사진그림엽서의 제작과 발행

러일전쟁은 1904년 2월 8일에 인천 앞바다에서 시작된 해전(제물포해전)을 시작으로 1905년 9월 5일에 포츠머스강화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와 만주(滿洲)지역(현 중국동북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반도일대와 만주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전쟁이다. 일본으로서는 당시의 서구 열강의

2) 주요 선행연구에는 田邊幹(2002)『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新潟県立歴史博物館研究紀要』第3号)、柏木博(2000)『肖像のなかの権力—近代日本のグラフィズムを読む』(講談社)、橋爪紳也(2006)『絵葉書100年—近代日本のビジュアル・メディア』(朝日新聞社)、貴志俊彦(2008)『戦争とメディアをめぐる歴史画像デジタル化の試み』(『アジア遊学』勉誠出版, 113)、山田俊幸·安田政彦(2006)『絵葉書にみる明治イマジナリーの形成と国粋主義の時代へ』(『帝塚山学院大学研究論集文学部』41)、浦川和也(2006)『絵葉書で朝鮮総督府を見る—『朝鮮半島絵葉書』の史的価値と内包された『眼差し』(『朱夏』21)、毛利康秀(2015)『ツーリズムの視点からみた『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の再検討—戦前期のハルビンに関連する絵葉書を事例として』(『政経研究』52(2))、向後恵理子(2003)『逋信省発行日露戦役紀念絵葉書—その実相と意義』(『早稲田大学美術史学会』41)、권혁희(2007)『조선에서 온 사진엽서』(민음사) 등이 있다.

하나인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근대적 총력전이다. 일본은 러일전쟁이 국운을 건 전쟁이었던 만큼 108만 명 이상의 병사가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전쟁비용 또한 증세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된 약 18억 엔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였다.³⁾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은 러일전쟁의 시작과 함께 전쟁에 대한 국내외적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고자 신문잡지와 같은 출판미디어는 물론 사진, 판화, 회화, 니시키에(錦絵), 사진그림엽서 등과 같은 다양한 시각미디어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활용은 전쟁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총력전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전장의 병사와 국내의 사람들에게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민’이라는 자각을 형성하는데 기능하였다. 특히 러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전장의 병사와 국내의 사람들을 연결해 준 사진그림엽서는 ‘국민’이라는 동질감을 배증시키는 한편 ‘국민일치(國民一致)’, ‘거국일치(挙國一致)’의 슬로건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내에 남아있던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강한 위기감 속에서도 각처에서 전해오는 승전소식에 열광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주목을 배경으로 일본체신성은 전쟁의 개전과 진행상황을 사진그림엽서로 제작할 계획을 세운다.

이번 전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국가의 영광입니다. 이번 전쟁의 기념으로서 교전의 실황 및 그에 관한 사진그림을 인쇄한 우편엽서를 발행해서, 첫째는 출정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이것을 증정하고, 둘째는 일반인들에게 이것을 판매함으로써 내외국인들에게 교전의 실황을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기적절한 계획이라고 사료되는바 다음과 같이 발행하고자 하오니 결재를 바랍니다.⁴⁾

일본체신성은 국운을 건 역사적인 전쟁을 기념하는 동시에 전쟁에 대한 국민

3) 飯塚一幸(2016)『日清・日露戦争と帝国日本』(吉川弘文館, p.124)에 의하면, 총동원 병사 수는 108만 8996명, 전사자는 8만 7360명, 전상병자는 38만 131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4) 長崎徳次郎立案(1904.6.21.)『戦役記念郵便絵葉書発行ノ件』通第二六二五号。(向後恵理子, 전게서, p.109 재인용)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今回外征ノ事タル古来未曾有ノ国策ニ候所、此際右記念シテ交戦ノ実況及之ニ関スル図画ヲ印刷シタル郵便絵葉書ヲ発行シ、一ハ出征軍隊慰籍ノ為之ヲ贈与シ、一ハ一般之ヲ売下ケテ内外国人ニ交戦ノ実況ヲ知ラシムルハ最モ時機ニ適シタル計画ト思考候ニ付、右発行ノ義仰高裁」

적 관심에 호응하기 위하여 사진그림엽서의 발행을 계획한 것이다. 그리고 발행한 사진그림엽서는 전장의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문품으로 활용할 것과 판매를 통해서 국내외에 전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체신성의 사진그림엽서 발행계획은 1904년 9월 5일에 제1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의 발행을 시작으로 구체화 되었다.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는 제1회부터 제5회까지 시리즈로 발행되었으며, 각 회의 엽서종류나 발행매수, 판매금액 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발행매수의 50%가량은 전장의 병사들에게 증정되어 당초의 발행취지를 이행하였다. 그리고 매회 발행된 사진그림엽서에는 일본어캡션과 함께 영문캡션도 병기함으로써 ‘내외국인들에게 교전의 실황’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응하였다.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시리즈는 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국내의 국민들에게 전황과 승전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각미디어로서 큰 인기를 모았으며 사진그림엽서의 유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후 육해군이 진행한 개선행사를 시리즈의 마지막 내용으로 다룬 제5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는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관심을 최고조로 달하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1906년 5월 6일에 발행된 제5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는 우편국을 통해 발매되었는데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군중들이 일시에 운집하면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 무렵의 사진그림엽서의 발매양상을 당시의 신문에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훈조국- 4시경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판매하지 않으면 훈조국을 파괴하겠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5시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군중은 다른 창구보다 더 팔아야 한다며 큰 소리로 화를 냈다. 마침내 담장을 부수고 훈조국 위로 올라가 옆 건물인 육군피복창 담장에 오르는 등 극도로 혼란스러웠는데 경찰관은 한쪽 구석에 둘러싸여서 움직일 수 없는 형국이 되었다. 피복창의 위병 10명은(중략)군중을 향해 펌프로 살수를 하지만 열광하는 사람들은 조금도 진정되지 않았다.⁵⁾

5) 『紀念絵葉書売出の大混雑(卒倒又は負傷者多し)』『東京日日新聞』1906.5.7.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本所局一四時頃には弥々多数となり売出さずば同局を破壊せんと罵り騒ぐにぞ止むなく五時より売初たるに群衆は他の口よりも売るべしと怒号し遂に柵を破りて局上に攀ぢ隣家なる陸軍被服廠の塀に上る等大混乱を極め警察官は片隅に圧せられて身動きも成らぬ始末となり被服廠の衛兵十名は…群衆の中へ唧筒にて水を注ぎ懸けしも熱狂せる彼等は毫も沈静の模様なき…』

사진그림엽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군중들의 행동은 마치 폭력적인 시위나 폭동을 방불케 할 만큼 격렬하며 심지어 경찰이나 위병도 군중의 혼란상을 진정시키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군중들의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관심이 신문기사에서 다룰 만큼 열광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 무렵의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는 사진그림엽서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잡지 『사진그림엽서취미(繪葉書趣味)』에도 소개되어 있다.

제1회부터 상당한 수요가 있었는데 마지막 제5회 때는 대단한 인기로 우편국은 아주 혼잡한 상태가 되어 부상자마저 나올 정도이다. (중략) 이 무렵의 사진그림엽서의 유행은 엄청난 것이어서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유행할 정도이다. 아무튼 사진 그림엽서 발행자인 체신성은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⁶⁾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5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의 발매는 군중들 사이에 부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우편국을 혼잡하게 만들었으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행할 정도로 일대 붐을 일으킨 한편 발행처인 체신성은 상업적인 측면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의 제4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까지는 매회 약 60만 세트 이상이 발행된 것에 비하면 제5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의 발행 수는 약 10만 세트에 불과한 점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판매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과 전장의 병사들이 모두 귀환한 만큼 병사들에게 증명하거나 위문을 목적으로 한 수요가 급감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인기는 충분히 짐작할 만큼 열광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체신성이 발행한 관제기념엽서인 ‘관함식기념’엽서와 ‘만주군총사령부 개선기념’엽서, ‘육군개전관병식기념’엽서도 각각 다량 발행되어 당시의 사진그림

6) 竜丘(1906)『紀念繪葉書』『繪葉書趣味』日本葉書會. pp.243-244.(向後恵理子, 전계서, 재인용)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第一回から可なり需要があつたが、最終の五回の時などは非常の人気で郵便局は大雑沓を来して怪我人さへ生じた程である。(中略)此頃の繪葉書流行熱は凄まじいもので、老若男女殆どこの熱に犯されないもの無い位である。兎に角繪葉書発行者としての通信省は大成功をしたといふてよい」

엽서의 인기에 박차를 가하였다는 사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⁷⁾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러일전쟁을 계기로 제작되고 판매된 사진그림엽서 중에는 사제기념엽서이지만 준관제기념엽서에 해당하는 ‘육군훈병부엽서(陸軍恤兵部)’와 ‘일본적십자사업서(日露戰役救護紀念)’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육군훈병부엽서에 대해 살펴보자. 훈병(恤兵)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군대나 군인들에게 현금 또는 위문품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육군훈병부는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7월 14일)에 조직된 육군성내의 부서이다. 주로 전장으로 위문을 가져나, 또는 전장으로 보내질 위문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육군훈병부는 러일전쟁 때에도 운영되어 전장의 병사를 위문하는 활동을 담당하였다.⁸⁾ 러일전쟁 당시에 대표적인 위문품으로는 사진그림엽서와 병사들에게 추위를 막아줄 면제품 방한구(恤兵真綿)였다고 한다. 육군훈병부에서 발행한 엽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1904년에 러일전쟁과 관련해서 10종이 발행되었는데 현재 5종이 확인되고 있다. 이 엽서는 육군도야마학교(陸軍戸山學校) 회화교수인 이시하라 하쿠도(石原白道, 1856~1916)가 1904년에 전장을 방문했을 때에 전장의 풍경이나 병사의 모습, 충후의 국민들의 위문 등을 그려서 석판으로 여러 차례 인쇄한 엽서를 육군훈병부가 발행한 것이다. 이것은 엽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이시하라(石原画 혹은 石原筆)라는 사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현재 확인되는 엽서의 그림을 살펴보면,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장의 풍경 그 자체보다는 병사의 모습(<엽서 1> 참조)이나 충후의 국민들의 역할, 승전을 축하하는 일본내지의 모습(<엽서 2> 참조) 등이 그려져 있다.

또한 엽서 뒷면의 오른쪽 하단에는 ‘명치



7) 각각의 발행 수는 다음과 같다. ‘관함식기념’엽서(약 3만 세트), ‘만주군총사령부개선키념’엽서(약 10만 매), ‘육군개선헌병식기념’엽서(총 2종 합계 약 122만 매), 向後恵理子, 전개서, ‘일러전역기념사진그림엽서리스트’ 참조.

8) 육군훈병부는 병사들의 위문을 위해 위문금(恤兵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는데 러일전쟁 무렵에 모금된 금액은 229만 엔으로 집계되어 있다. (『日露戰役以後 銃後の赤誠四千万円突破 陸軍省の集計成る』『神戸新聞』1937.3.5, 『日露戰役恤兵金二百二十九万円、軍事費の献納金二百二十一万円、合計四百五十万円』)

37년 일러전역에 즈음해서 종군군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한다(日露戰役ニ方リ從軍軍人ニ頒ツ為メ之ヲ製ス)는 제작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긴자카미카타야인쇄(銀座上方屋印刷)’라는 표기에서는 인쇄소도 확인이 된다. ‘긴자카미카타야인쇄’는 오사카에서 주로 니시키에(錦絵)를 취급하던 마에다 기헤이(前田喜兵衛)가 1886년에 도쿄의 니혼바시(日本橋)로 상경하여 운영한 상점이다. 주로 화투(花札)나 가루타(カルタ)와 같은 카드를 판매하거나 가부키를 제재로 한 사진그림엽서를 제작하고 인쇄하는 작업을 한 곳이지만, 육군홍병부가 제작한 사진그림엽서를 다량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일본적십자사가 러일전쟁기에 전개한 구호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한 엽서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적십자사는 1877년에 설립된 박애사(博愛社)가 그 전신으로, 1886년에 주네브조약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1887년에 일본적십자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일본적십자사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기에 의료구호반을 파견하여 구호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일본적십자사의 사업과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후세에 전달할 목적으로 부상자와 포로에 대한 구호활동을 기록한 2권의 사진첩(『日露戦争日本赤十字社救護写真帖』第1巻1905年11月3日発行、第2巻1906年発行)을 발행하여 배포·판매하였다. 그리고 그 사진첩에 수록된 사진을 활용하여 사진그림엽서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러전역구호기념(日露戰役救護紀念)’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5종5매 세트의 사진그림엽서이다. 여기에는 일본적십자사병원선, 의료구호반의 의료활동, 일본적십자사의 사장과 부사장, 육군대장이면서 일본적십자사의 총재인 황족 고토히토(総裁閑院宮載仁)와 그의 부인 지에코(智恵子, <엽서 3> 참조), 전장에서 포로에게 행한 의료활동에 관한 사진이 활용되었다. 정확한 발행연대나 발행매수 등은 불확실하지만 엽서에 찍힌 소인을 고려하면 발행연대는 1906



년 6월 이전으로 추정되며(<엽서 4> 참조), 국민들에게 전선의 병사에 대한 국가의 의료구호활동을 선전함과 동시에 외국인

들에게는 전쟁 상황에서도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일본정부의 이미지를 전파하는 역할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제2장 사진그림엽서 속에 투영된 제국의 프로파간다

1. 전황의 전달과 전쟁이미지

러일전쟁과 관련해 제작된 당시의 엽서에는 전장의 상황이나 풍경, 병사들의 모습 등을 촬영한 다량의 사진이 엽서제작에 사용되었다. 그 배경에는 청일전쟁 때부터 결성되어 전장으로 종군한 사진반의 존재를 지적할 수 있다. 당초 종군사진반은 전략이나 작전 설계를 위한 병영지도의 제작, 또는 전황의 기록 등을 목적으로 육군참모본부육지측량부의 부원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는데 러일전쟁 때부터는 규모도 확대되는 한편 해군에서도 사진반을 운영할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해졌다.(井上祐子 2012:135) 러일전쟁 때에는 청일전쟁 때부터 종군사진반으로 활약했던 오구라 겐지(小倉檢司)를 반장으로 대본영사진반이 조직되어 제1군부터 제4군까지 각각 45명 정도가 배속되어 운영되었다. 대본영사진반이 촬영한 사진은 각 신문잡지사, 출판사 등에 제공되었으며, 『일러전쟁실기(日露戦争実記)』, 『일러전쟁사진화보(日露戦争写真画報)』, 『근사화보(近事画報)』, 후에 전시화보(戰時画報)로 개칭, 『일러전역사진첩』 등과 같은 출판물과 사진그림엽서의 형태로 일본 내의 국민들에게 소개되었다.(小森陽一·成田竜一編 2004:29) 그런데 대본영사진반이 촬영한 사진은 지도 작성과 전황의 기록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건물이나 지형의 구도와 윤곽, 또는 전장의 풍경, 전리품, 점령지, 승전상황 등이 주로 촬영되었다. 그 반면에 격렬한 전투장면이나 불리한 전황은 배제되었으며 긴박한 실전의 긴장감이나 전장의 비참함 등은 그다지 노출하지 않았다. 또한 사진에 등장하는 피사체는 거의 일본군이거나 포로가 된 러시아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러시아군 포로의 사진은 부상병에 대한 의료구호나 전사자의 매장 등의 장면을 다량 촬영함으로써 일본군의 인도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즉 대본영사진반의 사진은 일본군의 승리나 군사적으로 필요한 시각정보와 장면만을 취사선택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지극히

부분적이고 편협된 시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군의 강인함과 근대적 이미지(문명성), 인도적 활동을 국내외에 유포하고 선전함으로써 대내외적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러일전쟁과 관련해 제작된 당시의 사진그림엽서에는 대본영사진반의 사진이 다량 활용되면서 사진첩이나 화보, 신문잡지 등을 통해서 전파되던 전쟁뉴스와 전황이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도 그대로 전달되게 되었다. 특히 체신성이 제작한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시리즈에는 제1회부터 제4회까지 매회 육해군의 대본영사진반이 촬영한 사진이 사진그림엽서 제작에 활용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은 1905년 4월에 출판된 『일러전역사진첩』 제3군 제3호에 수록된 사진이다.⁹⁾ 일본육군 제3군사령부는 1904년 10월에 2차 뤼순요새공격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갱도굴삭작업을 실시한 후 요새공략을 위한 포병대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사진 1>에는 ‘갱도의 굴삭작업을 행하는 제3군의 병사(坑道の掘削作業を行う第三軍の兵士)’라는 캡션처럼 갱도굴삭작업 중인 병사들의 모습이 찍혀 있다. <사진 2>에는 ‘28센티유탄포포격(二十八センチ榴弾砲による砲撃)’이라는 캡션과 함께 유탄포와 병사들이 찍혀 있다. 그런데 이 두 사진은 체신성이 발행한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시리즈 중에 1905년 2월 11일에 발행한 제3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엽서에는 ‘뤼순커우에서 공병의 대호작업(旅順口ニ於ケル工兵ノ対壕)’이라는 캡션과 <엽서 5> ‘공성포의 뤼순커우포격(攻城砲ノ旅順口砲撃)’이라는 캡션이 병기되어 있다.(<엽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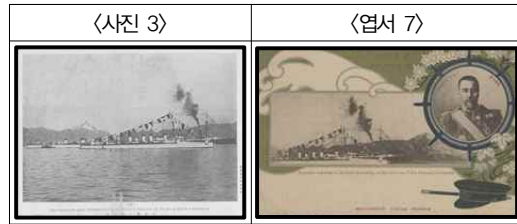
라는 캡션과 <엽서 5> ‘공성포의 뤼순커우포격(攻城砲ノ旅順口砲撃)’이라는 캡션이 병기되어 있다.(<엽서 6> 참조)

또 다른 예는 해군과 관련한 사진그림엽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05년 4월에 발행된 『일러전역해군사진첩』

제1권에는 해군성 기사였던 이치오카 다지로(市岡太次郎)가 촬영한 ‘천장절의 만

9) 『日露戦役写真帖 第三軍』小川一真出版部、1906年(文生書院에서 2005년에 복제출판)

함식(天長節ノ滿艦飾)’사진이
확인된다.¹⁰⁾(〈사진 3〉 참조)
그런데 이 사진은 체신성에서
1905년 2월 11일에 발행한 제3
회 ‘전역기념’사진그림엽서시리



즈 중에 ‘전지의 해군의 천장절(戰地ニ於ケル海軍ノ天長節)’이라는 캡션이 병기된
엽서에 등장한다.¹¹⁾(〈엽서 7〉 참조)

다시 말해서 체신성에서 발행한 ‘전역기념’사진그림엽서시리즈는 거의 매회 마
다 육해군의 대본영사진반이 촬영한 사진을 엽서제작에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전
장의 사진이 전파하는 전장의 뉴스나 전황을 사진그림엽서도 그대로 전파하고 확
산시키는 양상이 되었다. 실제로 ‘전역기념’사진그림엽서시리즈에는 전리품(〈엽서
8〉 참조), 점령지(〈엽서 9〉 참조), 승전상황(개선부대, 〈엽서 10〉 참조) 등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확인된다.



반면에 격렬한 전투장면과 전장의 비참함은 일정
부분 순화하여 사진그림엽서로 발행한 경우도 있다.
1905년 10월 15일에 제4회 ‘전역기념’사진그림엽서
시리즈로 발행된 것 중에 하나인 ‘동계관산의 돌격
(東鷄冠山ニ於ケル砲煙中ノ突貫)’이라는 캡션이 병기된 〈엽서 11〉에는 먼저, 포
연에 휩싸인 채 전투중인 병사들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중앙부에 등장하고 그

10) 만함식은 군함이 축제일이나 기념일과 같은 때에 축하의 의미로 함수(艦首)에서 함미(艦尾)까지
신호기(信号旗)를 잇따라 내걸고 장식한 것을 가리킨다.

11) 『海軍省認可日露戰役海軍写真帖』第一卷、小川写真製版所、1905年.

주변은 회화도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화도안은 사진 속의 전장을 마치 클로즈업 한 것 같은 장면을 재현하고 있으며, 사진 속의 포연과 회화도안의 포연이 절묘하게 오버랩 되면서 전장의 현장감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엽서프레임의 하단에는 포연 속에 놓여진 작점상태의 소총과 메이지37(1904)년을 연상하게 하는 숫자 '37'이 새겨진 일본군의 군모가 뒤집어진 채 그려져 있다. 러일전쟁사에 있어서 '동계관산의 돌격'은 알룽산(二龍山)공격과 함께 뤼순요새공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투로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요새공략에 실패한 전투이다. 즉 사진그림엽서 속의 포연 속에 놓여진 소총과 뒤집어진 군모는 이 전투에서 발생한 일본군 사상자를 우회적으로 그려낸 메타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전쟁의 참혹상은 순화되고 정제된 상태로 전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할 점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본영사진반이 촬영한 사진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시각정보와 장면에 국한된 지극히 주관적이고 부분적인 선택의 결과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본영사진반의 사진이 그대로 활용되어 제작된 사진그림엽서 또한 피사체 혹은 전장의 풍경에 대한 취사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된 산물이라는 것이다.¹²⁾ 그리고 그 결과로 사진그림엽서의 소비자이기도한 전장의 병사들은 물론 일본 내의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까지 전쟁에 대한 왜곡된 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전달하고 선전하는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서 충분히 기능한다는 것이다.

2. 여성의 '국민화'와 '충후'의 역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러일전쟁은 일본이 20세기이후에 일으킨 최초의 전쟁이며 동시에 일본 역사상 최초의 총력전이었다. 그런 만큼 전쟁에 지출된 전비나 참전병사의 수 등에서 그 이전까지의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었다.¹³⁾ 그 뿐만 아니라 총력전이라는 양상에 부합하여 전쟁을 지원할 국

12) 나카무라 고로(中村梧郎)는 사진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면서 전쟁사진이 부분적이고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 생산되고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中村梧郎(1983)『写真としての戦争』『現代詩手帖』思潮社, 第26巻第6号, pp.116-117)

내체제의 정비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국책’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전쟁수행을 위한 국민의식 또한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쟁수행을 위한 국가의 일원이라는 국민의식을 이식함으로써 ‘국민’의 통합과 재편성이라는 국민국가의 체제정비가 강조되고 실행되는 양상이 확연히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민’의 통합과 재편성이라는 국민국가의 요구에 여성 또한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었다. 즉 여성의 ‘국민화’라는 국가의 기대와 요구가 강조되고 한층 강화되는 상황이 급속히 진행된 것이다.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여성의 ‘국민화’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여성의 전쟁에 대한 협력과 공헌의 문제일 것이다.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는 여성의 ‘국민화’를 성별역할분담을 유지하면서 사적영역에서 ‘국민화’를 지향하는 ‘분리형’과 성역할분담을 해체하면서 공적영역으로 참가하는 ‘참가형’의 두 형태로 구분하고 일본의 경우는 ‘분리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⁴⁾ 다시 말해서 러일전쟁기의 일본여성의 ‘국민화’는 가정 내에서 성역할의 주체로서 현모양처를 실행하는 일이었으며, 국가의 기대와 요구에 호응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성의 ‘국민화’는 단순히 여성을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공적영역을 필요로 했으며 그 매개체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해 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공적영역의 필요성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예로 애국부인회라는 군사원호단체를 들 수 있다.

애국부인회는 1901년 2월 24일에 오쿠무라 이오코(奥村五百子)의 주창으로 설립되었으며, 동기는 오쿠무라가 1900년에 일어난 의화단사건의 현장을 시찰했을 때 병사들의 노고와 유족들의 구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작되었다. 애국부인회는 황족과 화족부인을 총재와 회장으로 하는 상류층 부인들이 군부와 내무성의 지원을 받아 조직되었다. 초대 회장에는 이와쿠라 히사코(岩倉久子, 이와쿠라 사다토모(具定)공작부인)가 취임했으며, 1903년에는 황족 고토히토(載仁)의 부인 지에코(智恵子)를 총재로 맞이하였다. 초기에는 전사자의 유족이나 상이병사

13) 참고로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에 지출된 총 전비는 약 2억 3천 엔 정도인 것에 비해 러일전쟁에 지출된 총 전비는 약 18억 엔 이상으로 집계되어 있다.

14) 上野千鶴子(1998) 『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 青土社, pp.32-38.

의 구호를 목적으로 부인들이 근검절약해서 회비를 내어 위로금을 기증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었다. 설립 당시의 정관에는 ‘본회는 전사 및 준전사자의 유족을 구호하는 일, 그리고 중대한 부상자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의 정관에는 ‘본회는 전사 및 준전사자의 유족 및 생활이 어려운 병사를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다.¹⁵⁾ 러일전쟁 중에는 일반 여성에게까지 조직을 확충하여 위문품 만들기과 병사의 송영 등에 동원하며 군국주의와 전쟁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05년의 회원 수는 약 64만 명에 달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로 전사자의 유족과 상이병사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애국부인회가 여성들에게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닌 가정에서의 ‘근검절약’이다. 다시 말해서 애국부인회는 가정이라는 사회적공간에서의 ‘근검절약’과 현모양처상을 전제로 여성의 ‘국민화’를 지향하는 활동을 전개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여성의 ‘국민화’를 지향하는 과정은 각종 기관단체 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직후, 당시의 주요 여성잡지의 하나인 『여학세계(女學世界)』에는 「시국과 가정(時局と家庭)」이라는 특집을 기획하여 개전상황과 전시체제를 소개하면서 전쟁에 대한 여성의 자세와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강적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일본군의 각오는 그야말로 비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전쟁은 단지 군대와 병사만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전쟁이며, 단지 남자 장정만의 전쟁이 아니라 부인과 아이도 또한 전쟁에 대한 일대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芳賀祥子 2015:144 재인용)

이 기사는 러일전쟁이 그야말로 ‘국민 전체의 전쟁(国民全体の戦争)’이라는 총력전임을 전제하면서 여성과 어린이도 전쟁협력을 위한 ‘일대각오’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전쟁협력을 위해 여성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각오’의 내용도

15) 飛鋪秀一『愛国婦人会四十年史』愛国婦人会、1941年(千野陽一監修(1996)『愛国・国防婦人運動資料集』日本図書センター). 1901년의 정관에는 ‘本会は戦死及び準戦死者の遺族を救護する事、及び重大なる負傷者にして、廢人に屬する者を救護するを以て目的とす’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1904년의 정관은 ‘本会は戦死並びに準戦死者の遺族及び廢兵を救護するを目的とす’라고 일부 개정되었다.

제시하고 있는데 ‘평소절검’, ‘홀병’, ‘출정군인의 집을 위로방문’, ‘적요함을 위로할 것’ 등이 그것이다.

전쟁에 대한 여성의 각오를 제시한 담론은 러일전쟁이 끝날 무렵에도 종종 확인된다. ‘이상적인 여성상’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05년에 창간된 부인잡지 『부인화보(婦人畫報)』 창간호에는 러일전쟁 때 육군대장이었던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의 부인 시즈코가 전쟁에 대한 여성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군인에게 시집을 간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 항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 ‘군인의 집에서는 언제나 전시상황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芳賀祥子 2015:144 재인용) 비록 육군대장 노기의 부인이라는 특수한 처지의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인 시즈코의 전쟁에 대한 자세와 ‘각오’는 그야말로 ‘충후’를 지키는 여성의 모습으로서 당시의 독자들에게 공감과 함께 ‘이상적인 여성상’의 모델로서 공유되었을 것이다.

한편 ‘충후’를 지키는 여성의 모습은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만들어진 각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발행한 사진그림엽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제재이다. 체신성이 1905년 2월 11일에 발행한 제3회 ‘전역기념’사진그림엽서시리즈에는 ‘도쿠시간호부인회(篤志看護婦人会)’의 의료 활동을 다룬 엽서가 등장한다.(<엽서 12, 13 참조>)

도쿠시간호부인회는 황족, 화족, 상류층 부인을 중심으로 적십자 사업에 봉사하기 위해 1887년에 창설되



었다. 최초의 활동은 부상자의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봉대를 감는 법이나 구급법 등을 배우는 것이었으며, 적십자활동의 중심이 되는 구호간호부의 역할을 맡으려고 한 것이었다. 그 후 적십자의 전문적인 구호간호부의 요청이 진행됨에 따라 직접적인 구호활동에서 봉대나 의약품의 조정, 부상자 또는 재난자용의 의류제작 등으로 활동이 바뀌었다.¹⁶⁾ 즉 도쿠시간호부인회의 의료 활동은 전장의 병사들을

16) 일본적십자사니이가타지부 홈페이지 참조.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충후’의 여성상의 단적인 표상으로 여성의 ‘국민화’를 자극하는 시각이미지를 제공하였다. ‘충후’의 여성상을 제재로 삼은 또 다른 예는 앞서 소개한 육군홍병부가 발행한 사진그림엽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엽서 14>와 <엽서 15>는 모두 육군홍병부가 발행한 엽서이다.

<엽서 14>에는 기모노를 입고 있는 일본여성이 소매 자락에 단추가 달린 옷감을 매만지는 모습이 회화양식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엽서의 오른쪽 상단에는 ‘적성(赤誠)’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일본어국어사전 『디지털 다이제센(大辞泉)』에 따르면 ‘적성(赤誠)’이라는 용어는 ‘조금도 거짓이나 허위가 없는 마음. 오로지 진심을 가지고 접하는 마음’이라는 설명과 함께 ‘국가에 적성을 다한다(国に赤誠を尽くす)’는 단 하나의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¹⁷⁾ 즉 ‘적성(赤誠)’이라는 용어는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그 대상이 ‘국가’라는 이미지와 연결된 용어임을 추측할 수 있다.

<엽서 15>에는 소쿠하쓰쿠즈시(束髪くずし)라는 머리모양을 하고 온나바카마(女袴)를 입은 젊은 여성이 왼쪽을 향해 화려한 꽃다발을 얼굴 높이에서 누군가에게 내밀 듯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 회화양식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엽서의 왼쪽 상단에는 ‘위군봉(為君捧)’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소쿠하쓰쿠즈시와 온나바카마가 메이지시대에 여학생들을 상징하는 머리모양과 복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젊은 여성은 여학생으로 추정되며 ‘위군봉(為君捧)’이라는 글씨는, 홍병이라는 엽서의 발행목적에 비추어 ‘전장의 병사를 위해 바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¹⁸⁾

무엇보다 육군홍병부가 발행한 이 두 엽서는 전장의 병사를 위한 ‘충후’의 여

(http://niigata.jrc.or.jp/?page_id=106 검색일:2017.5.20)

17)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少しもうそや偽りのない心。ひたすら真心をもって接する心。『国に赤誠を尽くす』’

18) 소쿠하쓰쿠즈시와 온나바카마에 대해서는 일본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第148回常設展示女学生らいふ」의 내용을 참조한다.

(<https://mavi.ndl.go.jp/kaleido/entry/jousetsu148.php> 검색일:2017.6.7)

성의 역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파간다성이 강하게 노정된 자료이며, 총력전이라는 국가적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성의 ‘국민화’를 자극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전파

사진그림엽서에 나타나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전파 양상은 몇 가지 예를 통해 특징지를 수 있다. 메이지정부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전파와 국민통합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법제화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메이지유신 직후에 제정한 축제일(祝祭日)의 제정이다. 근대일본의 축제일제정은 1868년에 메이지 천황의 탄생일을 ‘천장절(天長節)’로 제정하고 축하행사를 행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1873년 태정관(大政官)은 진무천황즉위일(神武天皇即位日, 1873년부터 기원절(紀元節)로 개칭)과 천장절을 국가의 축일로 정하는 포고(布告)를 내렸다.¹⁹⁾ 또한 1891년에 발포된 ‘소학교축일대제일의식규정(小學校祝日大祭日儀式規程)’에는 ‘기원절, 천장절, 원시제(元始祭), 신상제(神嘗祭) 및 신상제(新嘗祭)에는 두 폐하의 어진영에 최대한 예를 갖추어 경례를 하고 또 만세로 봉축한다. 다음으로 칙어를 봉독하고 교육연설을 한다. 그 다음에는 창가를 합창한다’는 행사 의식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와 함께 문부성은 소학교에 축제일 축하의식을 행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그 의식을 위한 창가를 선정하여 1893년 8월에 ‘축일대제일창가(祝日大祭日唱歌)’를 공포하였다. 이 창가에는 ‘1월 1일의 노래(一月一日の歌)’, ‘기원절의 노래(紀元節の歌)’, ‘천장절의 노래(天長節の歌)’가 포함되었다. 즉 국민들에게 있어서 천장절 행사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축제일로 각인되었으며 동시에 스스로가 천황의 신민임을 각성하는 행사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천장절 행사를 체신성이 사진그림엽서시리즈로 발행하여 판매하였다.

1905년 2월 11일에 체신성이 발행한 제3회 ‘전역기념’사진그림엽서시리즈에는 도쿄와 전장에서 각각 진행된 천장절 행사가 3매 1세트로 제작되었는데 각각의 엽서에는 ‘전시의 관병식(戰時ニ於ケル觀兵式)’, ‘전지의 육군의 천장절(戰地ニ於ケル陸軍ノ天長節)’, ‘전지의 해군의 천장절(戰地ニ於ケル海軍ノ天長節)’이라는 캡

19) 태정관포고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今般改曆ニ付キ、人日・上巳・端午・七夕・重陽ヲ廢シ、神武天皇即位日・天長節の兩日ヲ以テ今ヨリ祝日ト定メラレ候事’

선이 병기되어 있다.

먼저 ‘전시의 관병식’엽서는 ‘Army Review held in Tokio, November 1904’라고 병기된 영문캡션으로 보아 1904년에 도쿄에서 진행된 천장절 행사를 촬영한 두 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엽서 16〉 참조) 천장절 행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소는 도쿄위수총독부의 군용지(혹은 아오야마연병장)로 추정되며 일군의 기마병과 병사들이 관병식을 거행하는 장면이다. 천장절 행사로 이루어진 관병식인 만큼 대원수인 천황이 임석해서 군대의 경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육군의 천장절 행사를 담은 ‘전지의 육군의 천장절’엽서에는 만주군 총사령관인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대장의 사진과 함께 군악대의 연주 장면,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세 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엽서의 전체 바탕에는 천황(가)을 상징하는 국화문양이 그려져 천황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엽서 17〉 참조)

마지막으로 해군의 천장절 행사를 담은 ‘전지의 해군의 천장절’엽서에는 연합함대사령장관인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의 사진이 조타륜의 안쪽 원형에 배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벚꽃이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부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치오카 다지로가 촬영한 ‘천장절의 만함식’사진이 자리하고 있다.(〈엽서 18〉 참조)



이들 세 장의 사진그림엽서는 모두 일본군의 천장절 행사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국내의 국민(혹은 엽서 소비자)들은 엽서 속 행사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을 천황의 존재를 통해 전장의 병사들과 동질감을 공유하며 신민으로서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천장절 행사를 다룬 사진그림엽서는 전장의 병사들에게는 천황에 대한 절대충성을 전파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메이지천황은 1882년에 ‘육해군인들에게 내리는 칙유(통상 군인칙유)’를 군인들에게 전달하고 군대의 통솔자로서 ‘대원수(大元帥)’의 통수권을 발동하였다. ‘군인칙유’는 ‘우리나라 군대는 대대로 천황이 통솔하신다’고 시작하여 ‘짐은 너희 군인의 대원수’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그와 함께 하급병사가 상관의 명령을 받는 것은 천황이 직접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하여 절대복종할 것과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5개 덕목(충절, 예의, 무용, 신의, 절소)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²⁰⁾ 즉 병사들이 행하는 천장절 축하행사는 ‘군인칙유’에 명시된 천황에 대한 절대충성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실천하는 행위이며 스스로를 황군(皇軍)으로 자리매김하는 의식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사를 다룬 사진그림엽서는 ‘총후’의 국민과 전장의 병사를 통합하고 동시에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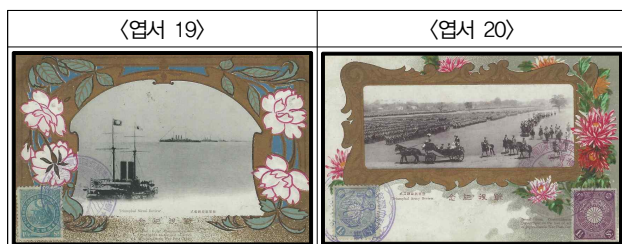
사진그림엽서에 투영된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예를 몇 가지 살펴보자. 러일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본 각지에서는 여러 차례 전승축하회가 개최되었다. 1904년 2월 9일에 인천 앞바다에서 전개된 해전(제물포해전)의 승리를 시작으로 그해 5월의 주렌청(九連城)점령, 9월의 라오양(遼陽)점령, 1905년 1월의 뤼순(旅順)점령, 같은 해 5월의 쓰시마(對馬)해전 승리 등 일본군의 전승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전승축하회가 개최되었으며, 그와 함께 전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승리에 대한 기대도 더욱 고조되었다. 그리고 러일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개선군이 속속 도착할 무렵에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개선문을 세우는 등 보다 성대하게 개선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대규모로 개최된 개선기념행사는 1905년 10월 23일에 개최된 해군개선관함식과 다음해 4월 30일에 개최된 육군개선관병식이었다.

해군개선관함식은 10월 17일에 도고 헤이하치로 연합함대사령장관일행의 이세신궁(伊勢神宮)방문을 시작으로 22일에 천황에게 전승보고, 23일에 개선관함식, 24일에 우에노(上野)공원에서 해군대환영회로 이어지는 개선기념행사의 하나로

20) 각각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我國の軍隊は世々天皇の統率し給ふ所にそある’, ‘朕は汝等軍人の大元帥なるぞ’, ‘下級のものは上官の命を承ること実は直に朕か命を承る義なりと心得よ’, ‘軍人は忠節を尽すを本分とすへし’, ‘軍人は礼儀を正しくすへし’, ‘軍人は武勇を尚ふへし’, ‘軍人は信義を重んずへし’, ‘軍人は質素を旨とすへし’

개최되었다. 개선관함식은 요코하마에서 시나가와에 이르는 도쿄앞바다에서 165척의 일본군함이 폭 약 9킬로미터에 걸쳐 일제히 정렬하여 그 위용을 과시하고 열병하는 행사였다. 무엇보다 이 행사의 절정은 메이지천황이 승선한 전함 아사마(淺間)를 향해 모든 군함이 열병식을 진행하며 천황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었을 것이다. 메이지천황은 도고제독을 비롯하여 해군대신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権兵衛) 등과 함께 군함의 열병식을 관람하면서 해군의 노고를 칭송하였다고 한다. 이날의 해군개선관함식은 1906년 5월 6일에 발행된 제5회 ‘전역기념’사진그림엽서시리즈에 등장한다.(〈엽서 19〉 참조)

〈엽서 19〉에는 ‘해군개선관함식(海軍凱旋觀鑑識)’이라는 캡션이 병기되어 있으며, 중앙부에는 해군성이 촬영한 개선관함식 장면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 속 바로 앞에는 육일승천기와 천황기를 게양한 군함이 위치하고 있고 수평선상에는



만함식의 군함이 여러 척 확인된다. 또한 그 사진의 주변은 프레임처럼 디자인된 벚꽃(야에자쿠라, 八重桜)이 감싸고 있다. 크고

흰 꽃잎에는 선명한 분홍색 윤곽이 그려져 더욱 강렬한 인상을 준다. 천황기가 게양된 사진속의 군함은 분명 천황이 승선하여 해군의 열병을 지켜본 전함 아사마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는 수많은 일반 행사 참가자가 육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도를 의식하는 순간 이 사진그림엽서는 군대와 일반 국민들의 중심에 천황이 존재하며 동시에 전쟁 승리는 천황의 권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도식을 생성하게 하는 장치가 된다. 다시 말해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교묘하게 전파하는 프로파간다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육군개선관병식을 다룬 사진그림엽서를 살펴보자.(〈엽서 20〉 참조) 육군의 개선관병식은 모든 육군출정부대의 개선이 1906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4월 30일에 아오야마(青山)연병장에서 개최되었다. 관병식은 만주 등지에서 귀환한 3만여 명의 병사와 환영인파,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이지천황이 무개

마차를 타고 황거에서 아오야마연병장으로 입장하여 각 부대의 분열행진을 관람하는 행사였다. 육군의 관병식은 해군개선헌관함식과 같이 메이지천황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하는 행사로 만주군총사령관 오야마 이와오, 참모총장 고다마 겐타로(児玉源太郎)를 비롯한 각 지휘관들은 물론 행사장에 참석한 환영인파들이 ‘천황 폐하만세’를 삼창하며 진행되었다.

육군개선헌관병식을 다룬 엽서는 해군개선헌관함식을 다룬 사진그림엽서와 함께 제5회 ‘전역기념’사진그림엽서시리즈로 발행되었다. 엽서에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무개 마차를 탄 메이지 천황이 아오야마연병장으로 입장하며 각 부대를 열병하는 사진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사진 속에는 메이지천황의 뒤를 이어 말을 탄 지휘관들과 마차를 탄 황족의 행렬도 확인된다. 그리고 그 사진의 프레임 주변을 국화꽃 여러 송이가 장식된 듯 배치되어 있다. 이 엽서에도 행사장에 참석한 환영인파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엽서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천황이 임석한 행사장의 열광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을 것이며 동시에 천황의 권능과 위엄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해군개선헌관함식과 마찬가지로 병사들의 천황에 대한 절대충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즉 육군개선헌관병식 사진그림엽서 또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투영하는 프로파간다장치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개선헌기념행사는 살아서 귀환한 병사들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었다. 육군개선헌관병식이 끝난 다음날인 5월1일에는 전사자들의 장소인 야스쿠니(靖国)신사에서 대칙제(大勅祭)가 시작되어 5일간 진행되었다. 대칙제는 천황의 칙사가 파견되어 진행되는 제사인 만큼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러일전쟁 중에 전사한 모든 병사들이 합사되었으며, 신사의 경내에는 전장으로부터 가져온 각종 전리품이 진열되었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 경내에서는 스모(相撲), 노가쿠(能楽), 불꽃놀이(花火), 가구라(神楽), 검무(劍舞) 등의 여흥 공연도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때를 같이 하여 5월 6일에는 제5회 ‘전역기념’사진그림엽서시리즈의 하나로 ‘이세대표(신궁)·야스쿠니신사(伊勢大廟·靖国神社)’가 발매되었



다.(〈엽서 21〉 참조)

벚꽃의 꽃잎 문양을 연상하게 하는 두 개의 도안 안에 각각 이세신궁과 야스쿠니신사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엽서에 등장하는 두 곳 모두 천황(가)과의 관계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이다.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세신궁은 황실의 조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御神)를 제사지내는 곳으로 황실의 신성성과 권능을 상징하는 토포스(topos)이며, 야스쿠니신사는 그야말로 천황의 권능과 위엄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사람들을 제사지내는 추도시설이었다는 점에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배양하고 전파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진그림엽서 ‘이세대묘(신궁)·야스쿠니신사’ 또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파하는 수단이었다.

결론-전쟁의 기억과 전승

러일전쟁은 1905년 9월 5일에 체결된 포츠머스조약과 함께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전쟁종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마냥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러일전쟁은 일본에게 있어서 막대한 전비와 병력을 투입하고 동시에 ‘총후’의 국민들까지 동원한 총력전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프로파간다도 범람할 정도 이용되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고조되었던 전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강화조약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와는 달리 일견 실망과 실의를 안겨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10년 전의 청일전쟁 때와는 달리 전승국 일본이 패전국 러시아에게 직접적으로 배상금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민들은 전비를 충당하기 위한 거액의 증세는 물론 갖가지 희생을 감내하며 국가의 전쟁에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의 신문에는 포츠머스조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강화조약에 반대하는 기사들이 다수 확인된다. 9월1일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천황폐하께서 화의의 파기를 명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天皇陛下に和議の破棄を命じ給はんことを請ひ奉る)」라는 사설을 통해 강화조약반대를 표명하였다. 그 후 대부분의 유력지가 강화조약을 반대하는 논설을 게재하

였다. 예를 들면,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9월 1일자 사설 「시체와 같은 강화에 조기를(死体的講和に弔旗を)」, 『지지신문(時事新聞)』 9월 1일자 사설 「강화조건은 유감(講和の条件は遺憾)」,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 9월 2일자 사설 「배상금포기는 불가(賠償金放棄は不可)」 등이 있다.²¹⁾ 결국 9월 5일에 약 3만 명의 민중들이 히비야(日比谷)공원에 집결하여 강화조약파기를 요구하는 결기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르고 마침내 민중들의 폭력적인 시위에 대응하여 당국은 도쿄 시내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17명의 사망자와 약 5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검거자 수 또한 2천여 명 이상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히비야야키우치(日比谷焼打)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히비야야키우치사건은 국가의 전쟁프로파간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그 실상의 불균형이 빚은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러일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은 결코 자랑스럽기만 하거나 위대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러일전쟁 이후 국민들의 기억 속에 러일전쟁은 자랑스럽고 위대한 전쟁으로 자리잡아가게 된다. 1905년 10월에 도고 제독이 이끄는 해군연합함대의 개선을 시작으로 일본 내의 곳곳은 전승축하회와 개전기념행사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국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는 러일전쟁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분위기의 연출에 사진그림엽서도 기여한다. 1905년 10월 15일에 발행된 제4회 ‘전역기념’사진그림엽서시리즈에는 ‘스이시잉에서 아군과 적군사령관의 회견(水師營ニ於ケル彼我司官ノ會見)’이라는 캡션의 엽서가 등장한다.(〈엽서 22〉 참조)

스이시잉(水師營)은 러일전쟁 중의 뤼순군 항공방전의 정전조약이 체결된 장소로 이 조약으로 뤼순군항공방전은 일본의 승리로 결정되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의 제3군사령관 노기 마레스케 대장과 러시아 측의 아나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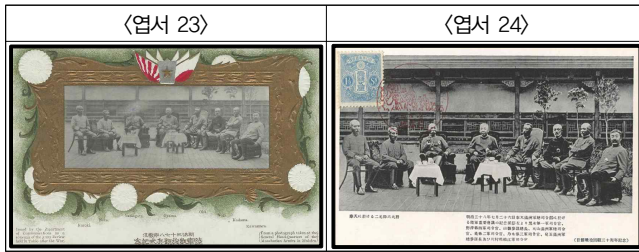
21) 그 외에도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천황에게 굴욕강화의 파기를 바란다(天皇に屈辱講和の破棄を願うと)」(9.1), 『호치신문(報知新聞)』 「비분의 투서 속속 모여든다(悲憤の投書続々寄せられる)」(9.2) 등의 사설이 확인된다.

스텝셀(Anatolii Mikhailovich Stoessel) 중장이 회견을 가졌다. 이 회견을 일본에서는 이른바 ‘스이시에이의 회견(水師營ノ会見)’이라고 부른다. 당초 ‘스이시에이의 회견’은 일본과 러시아 양진영의 지휘관들의 집합사진만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으나 사진그림엽서에서는 사진이 아닌 회화양식의 전쟁화로 제작되었다. 화가는 역사화나 전쟁화에 능한 화가 오야마 쇼타로(小山正太郎, 1857~1916)이다. 엽서를 살펴보면 오른쪽에는 일본군 지휘관들이, 왼쪽에는 러시아군 지휘관들이 배치되어 있다. 오른쪽 중앙부근에 흰 수염을 기르고 한손에 장갑을 낀 채 패용한 군도에 의지하듯 서 있는 인물이 노기대장이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약간 허리를 숙여 노기대장을 응대하고 있는 인물이 러시아군 스텝셀 중장이다. 그림에서 보면 노기대장은 장갑을 벗은 오른쪽 손을 살짝 앞으로 내민 채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마치 노기대장이 스텝셀 중장에게 훈계하는 듯한 장면에 가깝다. 러일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은 육군 측의 중대한 사건인 만큼 ‘스이시에이의 회견’은 사진이나 니시키에, 회화 등의 많은 시각미디어 등에서도 다루어졌다. 하지만 사진그림엽서에서 재현된 ‘스이시에이의 회견’은 승전국 일본의 여유와 패전국 러시아의 굴욕(또는 패전국 지휘관에 대한 정중한 배려)을 적절히 연출함으로써 이후의 ‘스이시에이의 회견’에 대한 담론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스이시에이의 회견’은 1910년에 발행된 문부성의 제2기국정국어교과서 『심상소학독본(尋常小学読本)』의 교재로도 수록되었다.²²⁾ 그 뿐만 아니라 1913년에 발행된 『심상소학창가 제5학년용(尋常小学唱歌 第五学年用)』에도 등장하며 러일전쟁을 일본국민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전쟁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도 1906년 4월 29일에 ‘만주군총사령부개선키념’으로 발행된 ‘From a photograph taken at the General Head-Quarters of the Manchurian Armies in Mukden(봉천에서 만주군사령부수뇌부)’이라는 영문캡션으로 소개된 <엽서 23>은 30년 후에 『일러전역30주년기념사진그림엽서(日露戦役三十周年記念絵葉書)』(4매1세트)로 재발행 되었다. 이때는 ‘봉천에서 이원수 육대장(奉天における二元帥六大将)’이라는 일본어캡션으로 소개되었다.(<엽서 24> 참조) 이것은 러일전쟁의 ‘영웅’을 다시 소환함으로써 또 다른 전쟁인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프로파간

22) 海後宗臣・仲新(1979)『教科書にみる近代日本の教育』東京書籍, p.114



다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발행된 사진그림엽서는 당초 엽서에 부여된 미디어로서

의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재현됨으로써 공적기억을 형성하는 장치로서도 역할을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사진그림엽서는 러일전쟁이 ‘자랑스럽고 위대한’ 전쟁으로 각인되고 기억되는데 일조를 하였다. 또한 러일전쟁의 대표적인 장면, 예를 들면 육군의 ‘스이스이에이의 회견’이나 해군의 ‘쓰시마해전’에서의 승리 등을 사진그림엽서로 재현하고 몇몇 전쟁지도자들의 영웅적 활약상을 신격화 하면서 이른바 ‘러일전쟁관’의 형성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러일전쟁을 계기로 발행된 사진그림엽서는 러일전쟁이라는 동시대적 기억을 국민적(집합적) 기억으로 통합시키는 한편 그 이후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서 재활용되었다는 점을 부연해 둔다.

■ 참고문헌

- 권혁희(2007)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p.15-56.
- 飯塚一幸(2016) 『日清・日露戦争と帝国日本』 吉川弘文館, p.124.
- 芳賀祥子(2015) 「日露戦争イメージの再生産:女性雑誌を中心に」 『比較日本学教育研究センター研究年報』, p.144.
- 毛利康秀(2015) 「ツーリズムの視点からみた『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の再検討ー戦前期のハルビンに関連する絵葉書を事例として」 『政経研究』 52(2), pp.545-574.
- 井上祐子(2012) 『日清・日露戦争と写真報道 戦場を駆け回る写真師たち』 吉川弘文館, p.135.
- 平間洋一(2012) 「絵葉書が語る日露戦争」 『歴史街道』, p.3.
- 貴志俊彦(2008) 「戦争とメディアをめぐる歴史画像デジタル化の試み」 『アジア遊学』 勉強出版, 113, p.68-74.
- 浦川和也(2006) 「絵葉書で朝鮮総督府を見るー『朝鮮半島絵葉書』の史的価値と内包された『眼差し』」 『朱夏』 21, pp.39-53.
- 橋爪紳也(2006) 『絵葉書100年ー近代日本のビジュアル・メディア』 朝日新聞社, p.1-224.
- 山田俊幸・安田政彦(2006) 「絵葉書にみる明治イマジユリの形成と国粹主義の時代へ」 『帝塚

- 山学院大学研究論集文学部』41, pp.49-73.
- 小森陽一・成田竜一編(2004) 『日露戦争スタディーズ』紀伊国屋書店, p.29.
- 向後恵理子(2003) 「逋信省発行日露戦役記念絵葉書—その実相と意義」『早稲田大学美術史学会』41, pp.103-124.
- 田邊幹(2002) 「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新潟県立歴史博物館研究紀要』第3号, pp.73-83.
- 柏木博(2000) 『肖像のなかの権力—近代日本のグラフィズムを読む』講談社, pp.1-289.
- 上野千鶴子(1998) 『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青土社, pp.32-38.
- 千野陽一監修(1996) 『愛国・国防婦人運動資料集』日本図書センター, pp.1-68.
- 中村梧郎(1983) 「写真としての戦争」『現代詩手帖』思潮社, 第26巻第6号, pp.116-117.
- 海後宗臣・仲新(1979) 『教科書にみる近代日本の教育』東京書籍, p.114.
- 竜丘(1906) 「記念絵葉書」『絵葉書趣味』日本葉書会, pp.243-244.
- 大本営写真班撮影(1906) 『日露戦役写真帖第三軍』小川一真出版部 (인터넷자료열람:<http://www.sakanouenokumo.com/ryojunkouryakusen2.htm>, 검색일:2017.5.17)
- 大本営写真班撮影(1905) 『海軍省認可日露戦役海軍写真帖』第一巻、小川写真製版所, p.17.
http://niigata.jrc.or.jp/?page_id=106 검색일:2017.5.20
- <https://mavi.ndl.go.jp/kaleido/entry/jousetsu148.php> 검색일:2017.6.7

■ Abstract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Propaganda in the Picture Postcard

HWANG IKKOO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by which Japan consolidated the Russo-Japanese War as a national memory and propagated its memory through the visual media of the picture postcard.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Japanese war propaganda and imperialist ideology will also be considered in the analysis. Picture postcards issued under the theme of the Russo-Japanese War played the role of disseminating war propaganda by depicting war images together with functions as media that conveyed war situations. The postcards were also a means of dispersing propaganda to support women's nationalization by expressing the image of the female in defense of the home front. In addition, the postcards fulfilled the function of strengthening the emperor's ideology while propagating it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picture postcards issued on the occasion of the Russo-Japanese War consolidated the contemporaneous memories of the Russo-Japanese War as a collective memory, and were also reused as a means of war propaganda when carrying out the subsequent war.

Key words : Russo-Japanese War, Picture Postcards, Propaganda, Nationalization of women, Emperor Ideology

■ 日本語抄録

絵葉書における日露戦争とプロパガンダ

黄 益九

この論文は日本が国民国家を目指していくなかで遂行した日露戦争を国民の記憶として統合し、なおその記憶を伝播していく過程を絵葉書という視覚メディアを通して分析する。またその分析から日本の戦争プロパガンダと帝国主義イデオロギーの展開様相を考察していく。日露戦争を題材にして発行された絵葉書は戦況を伝えるメディアとしての機能と合わせて戦争イメージを取捨選択して戦争プロパガンダを発していく役割も担っていた。また戦後の女性像を描出することで女性の国民化も模索するプロパガンダの手段であった。そしてもうひとつ挙げられるのは天皇制イデオロギーを強化すると同時に伝播する機能も果たしていた。つまり日露戦争を契機に発行された絵葉書は日露戦争という同時代の記憶を集会的記憶として統合していく一方、その後の戦争を遂行する際にも戦争プロパガンダの手段として再利用されていた。

キーワード：日露戦争、絵葉書、プロパガンダ、女性の国民化、天皇制イデオロギー

<필자인적사항>

성 명 : 황익구

소 속 : 청암대학교

연락처(이메일) : younrok@hanmail.net

투고마감일 : 2017.4.30

심사개시일 : 2017.05.15

게재확정일 : 2017.06.15